朝鮮日報

二十三日夕刊

新聞代價 一部(朝夕刊)金五錢 朝刊貳錢 夕刊參錢 一個月先金壹圓 三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鄕送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每行壹圓 四號活字每行貳圓 特別記事欄內 ...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金[illegible]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千年故都에 秋色이 깁다

[illegible] ...長및融合의 經路가 어떠하든지 그도이미 無用한 過去의일이다 그러나 慶州는 新羅千年의 故都이다 朝鮮人國民生活史上 니줄수업는 貴重한 때이다 秋色이 집허진 늣김이 만흔 때에 이 千年의 녯서울을 찾는것은 매우 興味깁흔일이다

×

吾人은 衰世에 生長한 人物이다 忠臣義士로 더부러 以死自守할것이어늘 어쐬 一千年社稷으로 가벼히 남에게 주랴? 고 痛哭拜辭하고 皆骨山中에 들어가 麻衣草食으로 一生을 보냇다는 王子의 운이 약이와 함께 哀史를 보담 ... 그러나 東부터 徐徐히 文 ... 을 點고 三國의 ... 야 優美 또 雄麗한 ... 景仰과 禮讚의 ... 을 想望하야 ...다

過去는 無奈! 將來는 可追!

感傷이 現代를 救할수 업슴은 勿論이다 그러나 過去를 全혀 떠나 現在를 발할수 업다 太宗王을 도아 統一의 業을 이루고 멀리 東海에 鯨鯢을 되여 恒時로 侵入하는 日本을 膺懲하야 外國民의 生活을 安穩케 하니 興武王 金庾信의 史實은 現代人의 눈으로 보아서도 感佩할 偉業이엇섯다 이제 天高日晶한 九秋의 節로서 발는 先民汗血의 녯터를 遍行하고 懷抱를 千古興亡의 자취에 부티어 塵世에 煩惱한 頭腦로서 다시 淸淨換脫하는 心境에 든다할진대 누가 그를 閑人의 閑事이라고만 하랴? 吾人은 慶州見學團의 壯擧를 보고 매우 意味만흔 일인것을 推稱한다

×

佛國寺 石窟庵의 天下의 重寶 朝鮮人의 자랑인 古藝術을 讚嘆함도 조타 斷片의 巷柵에서 豪傑의 英風을 追憶하고 處容의 情話와 回蘇의 悲曲으로 繁華하든 當時의 都市를 心頭에 彷彿케 함도 매우 조타 하물며 東海의 蒼茫한 물결을 바라보고 萬波息笛의 玄妙한 古話를 이야기하고 바舍山 ... 가는 구름을 指點하며 當時用兵의 略을 吟味함은 또한 매우 感興만흔 일이 아닌가?

×

아아 慶州는 百萬住民을 收容하든 千年의 故都이라 다」 이제 沒落된지 ... ! 秋色이 집흔 重陽을 압헤 輕快한 行裝으로 ... 함은 어찌 快擧가 아니냐? ... 늣기거라 ...

十省聯盟成立

徐州에 孫軍二十萬集中

(上海二十二日發) 孫傳芳氏는 二十二日午後二時南京으로부터 徐州에 向發하엿는데 江蘇軍十萬, 浙江軍七萬, 河南, 安徽, 江西, 湖北, 湖南, 福建, 陝西等十省聯盟이 成立되야 全部가 約二十萬의 兵을 徐州에 集中하야 大決戰을 試할것인데 目下 盛히 軍隊의 輸送을 하는中이오 一方 武裝을 解除식힌 奉天兵은 八千인데 邢士廉氏의 第三十師及奉天第八師는 殆히 全滅하엿다 尙且 吳佩孚氏는 다시 徐州에 向하야 進發할 豫定이더라

吳、奉軍討伐宣言

(上海二十二日發) 吳佩孚氏는 二十日蹶起하야 各省督軍의 蹶起를 促하고 二十一日 砲艦二隻에 手兵二千을 搭載하고 漢口에 上陸하야 奉天軍討伐의 宣言을 發하엿는데 此際馮玉祥氏의 態度는 注目中이더라

吳、討奉總司令就任

軍費이미 三百萬元調達

(上海二十二日發) 中國側의 報道에 依하면 昨日漢口에 到着한 吳佩孚氏는 곳 反奉天軍 總司令(一說에는 大元帥)에 就任하얏다 하며 尙且 反奉天軍은 漢口에서 軍費의 調達을 하야 旣히 三百萬元을 得하엿다고 報하고 漢口에서는 銀利捕底로 因하야 金利日步六錢外지 暴騰하얏다더라 의 兵을 集合하야 陣容을 整頓하야 徐州의 奉軍討伐의 擧에 出한 作戰을 取하겟고 河南의 岳維峻은 浙江軍總攻擊開始와 共히 이에 參加하리라고 觀測되더라

張宗昌氏

援軍總司令就任

(上海二十二日發) 張宗昌은 江蘇援軍總司令에 就任하는 東軍은 徐州를 第一防禦線아 敵軍을 向하야 攻擊할 計劃이라

一時外지 從業하는中이며 駐屯中인 奉天軍隊는 上海에 向하야 漸次集中을 開始하엿다 하더라

徐州에 到着

(上海二十二日發) 張宗昌은 二十[illegible] 徐州에 來하야 奉軍의 指揮에 當하더라

楊宇霆奉天着

(天津二十一日發) 一時行方不明을 傳하든 江蘇督辦楊宇霆氏는 二十一日午後四時奉天에 着하엿더라

開戰口實은

三個條項

(上海電) 今回奉直兩軍의 開戰의 理由로서 唱한것이 三個條가 잇다 即一、護憲二、護法三、清君側인데 그래서 一은 純直隸系의 高唱한바인바 曹錕의 作成한 舊憲法을 復活식인다 云함이오 二는 研究系岳維峻唐繼堯等의 說인바 曹錕의 憲法을 否認하고 그 以前 『約法』을 復活適用하라고 하는것인데 以上의 二는 政治的理由로서는 薄弱한것이나 此理由로 開戰함에는 段祺瑞氏를 目標하지 아니하면

奉軍敗走

五省聯軍에게

(上海二十二日發) 五省聯合軍의 謝鴻勳陳調元盧香亭의 諸軍은 二十一日長八嶺을 占領하고 奉軍은 蚌埠에 敗走하엿더라

奉軍徐州撤退

(奉天二十二日發) 徐州는 奉軍으로서는 防備에 不適當함으로 蚌埠南方으로 撤退한바 同地는 運河를 扼한 天險임으로 此有利한 地點에 據하야 一大決戰場을 삼으리라 더라

大本營은 南京에

(東京電) 漢口에 着한 吳佩孚氏는 二十二日에 同地에 滯在한 蕭耀南趙恒惕並孫傳芳代表其他長江沿岸八省督軍代表等과 會見하고 八省聯合軍盟主되라는 勸告를 承諾하야 正式으로 張作霖討伐의 旗幟를 鮮明히 하기로 하얏다 그래서 當分漢口에서 八省 又는 十省聯盟의 獨立政府를 樹立하는 同時에 南京에 大本營을 設하고 孫傳芳이 總司令이 되야 浙江、江蘇、安徽、湖南 ...

奉天軍의 對抗準備

銃砲彈藥等輸送開始

(奉天電) 張作霖氏가 月下如何한 命令을 各部隊에 發하는 中인가는 何人도 不知어니와 對抗準備도 具體化하야 旣히 大砲機關彈藥等의 輸送도 秘密히 開始하얏이 航空隊도 一部動員을 始作하는 中인데 目下 兵工廠、被服廠의 機關은 晝夜兼行의 大繁中忙中이더라

天電) 表面冷靜을 裝하는 奉天軍은 實際로는 各種의 軍事行動을 하는 中이던바 二十日로부터 二十一日에 大砲、機關銃、小銃彈藥等을 多數히 天津에 向하야 輸送하엿스며 張作霖氏는 軍事會議의 結果 東北陸軍第五第二兩師에 對하야 出動命令을 發하엿더라

各地軍隊集中 ‖(奉

尙且 奉天工廠에서는 時局關係로 作業時間을 每日延長하야 午後十

◇動亂의 中心인 江浙省境

停刊中의 世界事情

翻波逐浪의 中國動亂 (一)

安民世

사람이 知足을 못하지 못하다 得隴望蜀의 念은 다음으로부터 다음으로 趨進하야 일즉 底止할 바를 알지 못하니 『每一發兵頭鬢爲白』의 嘆은 다만 蜀道難을 깁내면서 用兵의 艱險한것을 浩歎하든 所謂一世의 奸雄의 假托語뿐이 아니다 西에 保障會議가 잇고 東에 關稅會議가 열리려하니 一은 歐洲의 中原에 잇고 一은 또 亞洲의 中原에서 進行되려하든 일이다 西의 保障會議는 이미 假調印이 終結되어 歐洲의 平和가 우선 一時의 曙光을 보게되엇거니와 東의 關稅會議는 그 將來의 歸結이 과연 어떠할는지 勿論樂觀을 許치 안는 바이나 混亂으로부터 勃發한 軍閥間의 衝突은 다시 翻波逐浪의

劇이 目前에 展開될 形勢이다 得隴望蜀의 無盡한 野欲은 항상 兵連禍結의 不祥한 事變으로써 하야 苦苦한 生民한갓 塗炭에 빠어지게 되고 吾人 悠悠한 一筆이 다시 自西徂東의 勞를 備聞케 하니 사람이 괴롭도다 知足을 하지 못하고녀! 春秋에 義戰이 업다고 中國의 先賢은 慨歎한바 잇섯거니와 吾人은 世間의 所謂義戰이 란 者를 承認치 안는다 『奸黨逆施天人共怒』라고 그의 賣國的罪狀을 擒拔하며 吳佩孚가 湖南의 駐屯地로부터 蹶起하야 滬防督辦將軍府로부터 定國軍各路司令의 部署를 發表하고 一擧에 兵亂을 勘定하듯 기서 들든 段祺瑞가 一敗塗地하야 永年幽囚의 몸을 지든 것이

變幻되는 局面

으로 마치 第三次奉直戰의 大活劇을 演出하엿섯다 하드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翻波逐浪의

一場의 悲劇이

라 할진대 昨年十月馮玉祥의 倒戈에 因하야 忽地에 陣容의 瓦解를 보게되어 寡將微兵으로 鷄公山上에 退隱하게 되든 吳佩孚의 運命도 또한 매우 孤危하든 바이엇섯다 그러나 이제 孫傳芳의 滬上의 擧兵으로 因하야 南京一帶長江下流 江蘇安徽의 兩省이 거의 다시 直隸派의 勢力下에 歸屬되고 天下의 風雲은 장차 徐州를 中心으로 一大會戰이 잇스리라 하니 風聲鶴唳尖끝은하는 亂邦으로부터 드러오는 消息이 往往히 正鵠을 잃는 바마 호나 前後의 形勢이 미 蓋然의 範域을 지나 거의 明確한 動亂狀態에 빠져감은 별서 否認할길 업는 形勢이다 『張作霖은 盜賊、段祺瑞는 賣國奴』라고 今次首亂의 猛將孫傳芳은 某紙의 特派記者의 面前에서 怒罵한바이라하거니와 關稅會議의 直前 內外의 時事가 多端한 現下의 中國에 잇서서 자못

國運의 消長을

風馬牛에 부티고 決然히 無用한 黨爭으로 뛰어진 짓 平地에 波瀾을 닐으키니 山海關의 一戰은 意外의 危機를 벗서나서 乘勝의 氣勢 자못 直派殲滅의 狠狠한 心事를 發露하든 張作霖의 得隴望蜀의 無厭한 野心이 그의 能動的原因이라 할진대 일즉은 長江의 流域그의 深固한 根盤을 作成하고 陵陵北上하는 勢力 널리 天下에 號令하든 直派將士들의 가슴속에 매처잇든 快快한 憤怒가 時乎時乎를 부르짓고 蹶然히 蜂起하야 兵連禍結의 慘澹한 序幕을 열게된것이 그의 受動的의 原因이라 할것이다 東三省은 中國의 鬼門이다 일즉 獫狁 匈奴의 衆이 北方으로부터 燕趙의 邊境으로 南下하든것은 이미 上古의 일에 屬하엿고 蒙古의 帝國이 一去한 後 漠北의 鉅野 다시 禍亂을 助長하는 者업섯거니와 오즉 關外의 重地 遼東의 平野가 中國安危의 關鍵을 잡고 잇는 特殊한 區域이 되는 것은 中國의 形勢를 論하는 者의 항상 留意할 點이다 張作霖의 大東北主義라 稱하는 者 잇스니 그는 一旦中央政局에서 敗退한 後 스스로

東三省의 虎踞

하야 保境安民으로써 金看板을 삼고 他省의 干涉을 拒絶하는 一面으로 養兵積粟 써 中原의 風雲을 기더리고 저하든 것이 그의 滿腹한 策略이엇다 그러나 東三省에 張大한 勢力을 잡고 잇는 者 早晚에

畢竟關內로 侵入하야써 北中國의 死命을 制할 危險에 잇거든 하물며 昨冬以後 直隸山東으로부터 河南에 그 羽翼을 펴려하고 다시 長江을 건너 江蘇安徽의 兩省外지 그의 關南의 城寨로 삼어 萬里에 轄踰하는 驕逸한 將卒로하여금 率爾히 反抗을 劃策하는 雌伏한 群雄들을 統裁하고저 하니 張氏近日의 所謂 大中原主義는 그 陣勢의 可觀할 者잇다 하기보담 차라리 粗莽이 可笑한 바 잇섯다 할것이다 그가 麾下의 猛將이라는 李景林 張宗昌으로 直隸山東을 坐鎭케 하고 다시 山海關의 勇將이라는 姜登選으로 安徽에 進出케 하며 그의

帷幄의 謀將인

楊宇霆으로 스스로 南京을 占據케 하니 그의 劃策과 排舖가 雄大하다 할가? 대개 妄想인 者이요 誤計인 者이다 負嵎의 猛虎가 平野에 彷徨하면 樵叟牧童은 威嚇할 수 잇스나 또한 結局 樵叟牧童에 捕殺되는 禍厄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張作霖의 野心策失敗! 그는 곳 今次動亂의 序幕을 열게 하는 根幹的原由가 되는 것이다

馮玉祥調停通電

張、孫兩氏에 對하야

(北京二十二日發) 注目의 焦點이 되야 잇는 馮玉祥氏는 二十一日 調停者의 役을 잡어 張作霖、孫傳芳兩氏에 對하야 各各 電報를 發하얏더라

인바 二十一日 執政의 軍事行動을 制止한다는 電令을 讀하고 感佩不堪하는 바이다 余는 昨日 張作霖과 孫傳芳에게 最近親한 바의 江浙駐兵問題는 조금 誤解가 잇노라 余는 僻遠에 잇서 眞相을 不知하나 國內의 騷擾가 年來不絶하니 我力의 及한 대로는 幹旋할 터이니 望컨대 兩方이 互讓하야 和平解決을 期하라 고 打電하얏스니 幸이 洞察함을 乞한다 하엿더라

안될리인데 表面으로 段에 敵對하는 것은 國民의 同情을 失하고 各自가 不利함으로 二의 說이 最近盛하게 되여 오며 三段氏의 左右에 安福

段執政에 密電 ‖(北京

二十二日發) 馮玉祥은 二十二日包頭鎭으로부터 段執政에게 此의 密電을 發하얏더라 江浙의 風雲이 忽起하야 甚히 憂慮

孫文大學募生

應募者이미 千名

(廣東二十二日發) 廣東政府는 勞農政府의 好意에 依하야 莫斯科 孫文大學科學生을 募集中이던바 應募者千名中 試驗을 經하야 二百五十名을 採用할터이더라

系其他好臣이 잇서 金法郎會議等 中國을 爲하야 不利함으로 內閣을 更迭식히지 아니면 안된다 고하야 孫傳芳[illegible] 하고 岳維峻이 贊同함으로 ... 職의 理由는 恐컨대 第三[illegible] 되리라더라

關稅會議斷行決定

戰亂如何에 不拘하고

(東京電) 關稅會議에 關하야 ... 政府는 二 ... 會議開 ... 告하엿다 ... 意見交換 ... 目下 ... 議가 업 ... 에 開會 ... 中이다 ... 議事續行 ... 一時休會 ... 事實上 ... 延期의 ... 疑치아니 ... 政府에서 頗히 疑 ... 測은 不許하 ... 上會議의 ... 가 되는 時는

畢竟中國側으로부터 延期通知가 잇슬지라도 日本政府로서는 其善後策에 關하야는 列國과 協調하야 其態度를 決할터이라더라

議長은 和蘭公使

(東京電) 北京政府는 二十六日午前十時居仁堂에서 關稅特別會議開會式을 行할 旨로 各國公使館에 通知를 發하엿다 尙且同會議議長選擧는 豫히 各國間에 商議하야 아마 首席和蘭公使가 推擧되리라더라

日記者는 出入拒絶

(北京二十二日發) 關稅會議議場出入에 關하야 英米側에서는 日本記者團을 議場에 드림을 拒絶하고자 執政府에 交涉中인 一方英米記者는 特例를 맨들어 自由로 出入하게 하라하니 此는 日本에 對한 反感又는 誤解에 因함인듯하더라

現洋取締嚴重

(哈爾賓發) 秋季到來와 共히 所謂人羅苦力의 南行歸鄕하는 者가 多한바 此等은 一個年間의 貯蓄을 現洋으로 交換하야 携行함을 常事로 하는데 其額이 一千八百萬乃至二千萬元에 達함으로 外銀行은 兩換을 拒絶하고 官憲은 旅行者의 現洋帶出을 嚴重히 取締함을 普通으로 하는것인데 目下 其時期가 切迫

米國의 露承認條件

依然從來와 大差가 업다

(華盛頓二十一日發) 亞米利加의 前『아데아나』州知事 『굿도릿치』氏는 曾히 露國事情을 調査키 爲하야 露西亞에 滯在하는 中이던바 最近歸國하야 二十一日大統領『쿨릿지』氏를 訪問하얏는데 氏는 大統領에게 亞米利加의 勞農露西亞承認問題의 再考를 催促한것이라 解釋된다 그런데 米國의 露國承認條件은 左와 如하다고 傳하더라

一、『케레스키』時代의 負債承認
二、在露米國民의 私有財産沒收에 對한 保障
三、合衆國內에서 『쏘베트』宣傳을 하지아니할 保障

右三點은 從來와 變更이 無한것이라

케른撤退는

來月十五日外지

(쌀도無電二十一日發) 獨外相『스트레제만』氏는 『라인』地方代表者에게 聯合國은 『로카르노』條約에 依하야 十一月十五日以前에 『케른』撤退를 行하리라고 述하얏더라

英帝國解體前提?

……로카르노條約과

注意할 英植民不參加

(쌀도無電二十二日發) 露西亞政府機關紙는 『로카르노』條約에 印度其他英吉利海外植民地의 加入치아니함는 注意할 必要가 잇는바 英帝國의 解體는 或은 此點에 서 發端치아니할가 觀測하는 中이더라

希、勃戰鬪繼續

(雅典二十二日發) 希臘軍은 更히 進하야 勃牙利의 『쿠라쿠』村을 占領하고 兩軍戰鬪는 尙今 繼續되며 死傷者가 雙方이 多數에 達하엿더라

希、强力援隊增派 ‖(雅典二十二日發)

希臘政府는 雅典其他各地에 衛戍隊로부터 强力의 增援隊若干을 組織하야 勃牙利國境에 急派하얏는데 右는 勃牙利가 希臘의 最後通牒에 對하야 二十四時間以內에 回答을 發치아니하는 時는 勃牙利領內의 占領地域을 擴張키 爲함이더라

外人土地禁止可決

……墨西哥上院에서

(쌀도無電二十二日發) 墨西哥上院은 『카레스』大統領提案의 外人土地所有禁止法은 二讀會에서 可決하얏더라

[illegible]司令

張煥相氏[illegible]說

(哈爾賓電) 中東鐵道護路軍司令은 朱慶瀾大將이 辭任한 後 [illegible]와 가티 職東히 하는 張作相中將이 兼任中이더니 張作相中將은 吉林省軍務督辦으로서 兼任하기 難한 點이 잇슴으로 事實上 參謀長으로서 一切를 裁斷하는 張煥相中將을 正式으로 總司令에 任命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意見으로 近近 張煥相中將의 任命을 보게 되리라고 觀測되더라

佛政府의 危機

(巴里二十二日發) 佛國下院開會劈頭에 市價調査員은 財政에 就하야 質問하야 表決前에 모든 提案에 就하야 充分히 討議하기를 要求하기를 決하엿다 右는 『카이로』氏 反對의 策動인 故로 佛國政界의 危機의 兆라고 觀測되더라

五一議會의 前途

……解散? 無事通過?

本黨態度의 曖昧와 憲政會側의 逡巡

(東京電) 憲政會는 在野兩派의 態度에 依하야는 解散을 辭치아니하겟다하야 頻히 本黨을 威嚇하나 同派의 眞意는 寧히 될수 잇스면 解散을 回避코저 함은 不可蔽의 事實인데 一方 憲政會가 解散을 願치아니하는 主要理由는 一、解散의 結果過半數를 制할 希望이 容易히 뵈이지 아니하는 것、一、選擧費는 議者總選擧에서 加藤總裁로부터 相當히 豊富하게 된 關係로 幹部는 再次總裁에게 依賴함에 逡巡하고 잇는 것、一、加藤首相은 旣히 野望을 捨하고 될수 잇는 대로 無事主義를 取코저 하는것 等으로서 本黨에 對하야 種種術策을 試하야 그 態度를 軟化식히라고 努力한다 即一、本黨財政의 窮乏에 對하야 相當한 援助를 與할것等의 條件으로서 頻頻히 本黨의 歡心을 買하라고 하는 同時에 前回의 總選擧에 本黨이 資金을 捻出하엿든 其殘職會社의 關係를 官憲을 利用하야 內密히 調査하야 本黨의 反省에 備하야 同黨을 牽制하는 中이다 이러한 으로 本黨도 相當히 煩惱하야 對政府態度를 闡明히 안음은 爲主히 此의 事情에 基因한 것이라고 傾向이 잇더라

의 主義는 前來法制局에서 繼行되야 旣히 實質的으로는 審査終了하얏스나 形式的方面에는 整頓되지 못한 바 잇슴으로 閣議上程案으로 서의 形式을 備함에는 今後二回의 法制局會議를 要할터이라 이러함 으로 日數에 對하야 一週間을 要하야 閣議上程은 順調로 進行하면 三十日의 閣議에 될 豫定이더라

普選法施行令

閣議上程期

(東京電) 普通選擧法施行令

兒玉長官辭任說

(東京電) 兒玉關東長官은 議會前에 辭任하리라는 說이 잇더라

産米增殖은

終乃엔 督府直營

實現乃已

(東京電) 朝鮮米增殖計劃은 過般來 當局과 大藏當局者間에 接衝을 거듭하던바 大藏當局의 方針으로는 非募債主義를 持續하는 時에 當하야 特히 朝鮮에만 積極的 募債를 하는 것은 當初의 主義에 反하는 것임으로 公債財源으로 하는 第一案은 削除하야 버리게 되얏슴으로 草間財務局長은 一旦 朝鮮에 歸任하야 更히 研究하야 가지고 再次渡東하야 目下 關係方面에 對하야 第二案의 諒解를 求할지며 若第二案이 成立되지 못하면 第三案을 實現할 意氣로 必死的 活動을 開始할터이라는 데 聞한 바에 依하면 公債에 財源을 求하는 것은 以上과 如한 理由로 爲先斷念되얏스나 更히 財源을 低利資金에 求하던지 又는 總督府直營이 全然 不可能하게 되면 別個의 會社에 經營케 하는 等 如何한 方法으로던지 實現케 할 態度이더라

共進會와 車賃割引

十一月二十日로부터 同二十四日外지 晉州에서 開催하는 晉州郡外一府十一郡聯合重要物産共進會出品人關係役員及出品物에 對하야 左記와 如히 朝鮮鐵道會社를 通하야 割引키로 하엿더라

一、割引區間 大邱以南各驛金泉鳥致院、大田、水原、裡里、松汀里等其他로부터 往復
一、期間 十一月一日로부터 十四日外지
一、通用期間 發賣日로부터 十一月二十七日外지

人事消息

▲李寬淳氏(安州大聖校長) 一週間豫定으로 廿一日入京 湖海旅館에 滯在中
▲安在鴻氏(本社主筆) 二十三日부터 電話光化門一一五七番開通

八面鋒

○ 東京赤坂區에、살던 社會主義者、高尾平兵衛를、射殺한 赤化防止團長米村은、檢事가 二年求刑을 하엿다고、

○ 大杉榮殺害한、甘粕大尉의 獄中優待를 생각하면、勿論、그러키도 할일、

○ 閑泉郡廳에서는、별서 納稅한 사람에게、滯納處分을 行하야 强制執行을、하엿다 자、官廳에서도、잘못하는일이 잇나?

○ 오—— 또 생각이나、京城府에서도、한번 李堈公 完用의 學校費를、잘못 査定한 일이 잇섯거니

天高氣朗한月末來初에 羅朝古蹟을차저慶州에

반도문화의발생디며명승고적의도회처

경성려행안내사(旅行案內社)와 본사에서는 하늘이놉고 바람이 맑은 십월말 십일월초생의조흔 긔후를 긔약하야 경주견학단을 조직하게되엿슴니다 경주가 엇더한곳이라는것은 지금 새삼스러히 설명할필요도 업스려니와 반도의문화는 실로 이에서움돗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란만한꼿을 피엿슴니다 그럼으로 인간의영화를 자랑하던 대신라(大新羅)의남은자취는 천유여년을지낸 지금에잇서서도 오히려유지시객의 만흔회포를 울어내는것이외다 함을며 봉황산(鳳凰山)우에 락엽이흣날리고 오릉(五陵)담안에 추초가황량한이때에 천년의고도를 방문하는것은 만흔취미와 만흔감개를 예긔할수잇는것이 아니오릿가 더군다나 조선의력사를 말하고자하면 위선계림(鷄林)의 묵은숩을 산보하야 경주김씨의시조가나왓다는 금궤의전설을맛보고 첨성대(瞻星臺)아래에 방황하야 당대의문화뎡도를상상하며 텬하의 보배라고 일컷는 봉덕사(奉德寺) 종소리를들어 천고에변치안는 음성을 들으며 반월성(半月城)의 옛규모를 구경하고 다시 더원족조의 모범이 되리라는 안압지(雁鴨池)가에서서 불국사(佛國寺)에 임하는 량군의그림자를 비취어 보앗다던 아릿다운전설을 듯지안코는 아니될것이외다 이외가티 경주의고적은 력사상의견문을 넓히게 할지며 경치를찻는우리의눈을 반기게할지며 변천무상한 인생의과뎡을 말하여줄것이외다

주최자의

두사에서는이와가티 실익과취미를 겸한곳에 동지제씨를 안내하야 반약의경비와 여러가지편리를 도읍기로한것이오니 이다시엇기 어려운 긔회를리용하여주시옵

崔六堂의 臨塲講演

취미와실익을 상상할수잇다

경주는 별항에도 대강긔록한것과가티 조선력사상에 중대한관계를가진곳임으로 금번 견학에는 특히 조선력사에 대가인 륙당최남선씨(六堂崔南善氏)에게 동행을청하엿던바 씨도 이취지에찬성하야 동행하기를 쾌락하엿슴 의미만흔고적에 림하야 정상해박한씨의 강연을 듯는것은 그취미와리익이 얼마나할가 함은 다시만흔설명을 요치아니할줄로밋슴니다

◇사진은 경주부근에잇는대종무렬왕비(大宗武烈王碑)

朴氏又復召喚

동대문서에서

시외신설리(新設里)일백구십칠번디 박희도(朴熙道)씨에게 해외에잇는○○단으로부터○○에대한 사명을 십구일견에임명하엿다는 정보를 접한소관경긔도경찰부에서는 동씨의집에 가택수색을파견하야 엄중한 가택수색을하엿스나 하등의 증거물을 엇지못하엿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하엿든바어니와 경찰당국에서는 나날이박씨의 태도에 대하야 경계를 게을리하지안튼바 이십삼일오전 아홉시경에는 돌연히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서 권긔박씨를 소환하야 동서서장대리매전(梅田)경부와 고등계주임 고촌(?村)경부보가 밀의를한뒤 장시간을 두고 엄중한신문을하고 동일오후한시경에일시돌려보냇다더라

崇賢女校에 白女史巨額寄附

삼만원어치토디를긔부

평양부수옥리(平壤府水玉里)에거주하는 백선행녀사(白善行女史)는 근일 평양장로교회의경영인 사립숭현녀학교(崇賢女學校)에대하야 대동군추자도(大同郡楸子島)에잇는 자긔의소유젼답(田畓)이 만륙천여평(二萬六千餘坪)시가삼만원에 상당한것을 긔부하얏는데 동녀사는본래안씨(安氏)의 가문에 출가하야 십육세의묘령시대에 불행히남편을 여이고 륙십여년의 긴세월을 홀로보내면서 푼푼이모흔재산이 백만원이란 거액에달하나 더욱쓰기를 절제잇게하고 재산에대한 일반처리를 굿게하야 한써사회를위하야 유익하게쓰기를 스사로 계획중이든바 얼마전에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光成高等普通學校)에 수만원을 긔부하고 금번에다시전긔숭현녀학교에 거대한재산을 긔부하얏슴으로 동교경영자와 직원일동은 물론이요 일반사회에서까지도 동녀사의 긔특한정성을감사하야 마지안는 중이라더라 (평양)

京南鐵安城線 래월일일에개통

당일무료승차권발행

경남텰도(京南鐵道)안성선(安城線)부설공사는 요사이에이르러그준공(竣工)을보게되엿슴으로 오는십일월일일부터 개통을시작하야 려객(旅客)과 화물의운반을 할터이라는데 개통식을거행한후에는 당일 텬안(天安)안성(安城)사이에 개통축하의의미로 하루동안무임승차권(無賃乘車券)을 발행할터이라더라

鐵道局技手가 金一萬圓을受賂

수해를당한텰도관사의 청부공사를식혀준다고 龍山署秘密裡에大活動

조선텰도국 경성공무소 건축공사(朝鮮鐵道局京城工務所建築工事) 주임기수(主任技手)관구등길(關口藤吉)은금년에수해를당한 텰도국관사(官舍) 사백오십여호의 복구공사비(復舊工事費)에대한 공비오십여만원을 마터가지고 공사를계속하는중인데 관구는청부업자(請負業者)로부터 공사청부를식히여주겟다하고 약일만원가량의 거액의금전을 뢰물로바더먹은 사실이 발각되야 소관룡산서에서는 목하비밀리에 로중히 됴사중이라는데 사건의 발각은 전긔관구는 백십여원의 월급을밧는자임에 불구하고 생활을백만장자와가티 호활오이 할뿐만아니라 동경(東京)과부산(釜山)을비롯하야 시내죽첨뎡(竹添町)등디에 만흔토디를 삽으로 이것을 이상히 녁인룡산서에서 비밀히됴사한결과 전긔사실이발각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이십사일에 관구를비롯하야 청부업자 삼사인을당서에소환취됴하리라한다

露語研究開講

경성청년회에서

시내재동(齋洞)팔십사번디에잇는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에서는 로어연구부(露語硏究部)가 그동안휴지상태에 잇섯는바 마츰로서아에서생장하야 『치다』대학을졸업하고 그곳에잇는 의학전문학교(醫學專門校)에서 의학을연구하야가지고 오래동안 그곳에 나아가사는우리사람의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헌신뎍으로활동하는강뎡희(姜貞姬)씨를 선생으로초빙하야 그전보다 더욱충실한내용으로써 교수를 시작한다는바 개강일자(開講日字)는 십일월일일로부터라하며 장소의관계로 모집인원은 이십명으로제한하야 매일 오후칠시로부터 동 팔시까지로하고 지금연구원을 모집중 이라는데 지원자는 누구던지 입회금일원과 일개월연구비(研究費)일원을 첨부하야 수속하기를 바란다하며 자세한사항은동회관에가서무르면알리라더라

主日校大會三日 各科가分室祈禱

인원은만코장소는좁어 긔도회를난호어서본다

데이회전조선주일학교대회(第二回全朝鮮主日學校大會)는 개회이후로 나어오는디방 대표가련일답지하야 공전의 성황리에서 유감업시진행중인데 종래매일오전 아홉시부터 데일회장(第一會場)인 승동례배당(勝洞禮拜堂)과 데이회장(第二會場)인 중앙청년회관(中央青年會館)에서모히든대회긔도(大會祈禱)는 인원은만코장소는협착한관계로 이십삼일(금요일)부터 다음과가티 장소를변경하엿스며

▲영아과긔도 태화녀자관
▲유치과긔도 묘동례배당
▲초등과긔도 중앙뎐도관
▲소년과긔도 승동례배당
▲중등과긔도 안동례배당

오후한시부터는 대회원 전부가 중앙청년회관안광장에모혀서 경복궁(景福宮)、총독부신청사(總督府新廳舍)、창경원(昌慶苑)、고등공업학교(高工校)、의학전문학교(專門校)등를순차관람할터이오 밤에는 여흥이잇슬터이라는바 그순서는 별항란외와갓흐며 이와가티 장소가 변경됨을 따러그순서도 림시림시로 뎡하게되엿다하며 이다음관광일 장소도림시림시로뎡할터이라더라

旗를들고 宣傳行列

매우장관일듯

대회를 종료한후에는 수천의회원이 각각선뎐긔(宣傳旗)를 들고 전시내로선뎐행렬을 하야 더욱성황과장관을이룰터이라더라

北村一帶는 恰似基督教國

각디의대표로

긔보한바와가티 이번대회는 긔독교계의 실로처음보는 큰모힘이라는데 그럼으로 경성북부일대에는 각처로부터 입경한대회원 들로거의긔독교의 나라를 이루운것 갓다더라

昌成洞에屍體

걸인이죽엇다

이십삼일새벽네시경에 시내창성동(昌成洞)일백칠십삼번디압길에서 나히이십일이세가량의걸인남자한명이 죽어잇는것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시톄는 경성부텽에 인도하얏다는데 죽은원인은영양부족인듯하다더라

◇吳越同舟의市實兩軍 일본관서에서 두번싸와 두번익인 미국시카고대학야구단과 두번패한 일본보총야구단은 이십삼일아츰 한차에서나렷다 =경성역에서=

慶州古蹟見學團員募集

◇探勝時期 十月三十日夜京城發着 十一月二日朝京城歸着 (平壤、水原、鳥致院、開城、各驛에서中間乘車의便宜도잇슴)

◇參加會費

- 京城에서 往復車費每人 七圓七十錢
- 平壤에서 同 十一圓七十錢
- 開城에서 同 八圓八十錢
- 鳥致院에서 同 五圓六十錢
- 水原에서 同 七圓

(但食費、旅館宿泊費及人力車賃、寫眞代、入場料等은每人三圓式에添加함)

◇申請 京城旅行案內社 本社及本社支局

◇申請期間 十月二十九日午後四時까지

主催 京城旅行案內社 後援 朝鮮日報社

스폿스王國으로부터온 시카고大學軍

對全朝鮮軍野球戰은 二十八日頃에擧行할터

二十三日아츰에入京한시카고大學野球團은在京日人側體育協會의招聘을바다朝鮮에온바本社에서는이러한遠來의珍客이스폿스王國인野球本產의米國으로부터朝鮮半島를밟게됨은實로우리運動界로서가장意味가깁흘뿐아니라외로웁든朝鮮球界의스승을맛난듯한福音이라아니할수업는터임으로이에늣긴바잇서朝鮮을밟은그들과朝鮮人軍과게임의機會를만들고저本社에서는社員을大邱까지派遣하야同行된體育會派遣의代表와『시』軍督監及其他關係者가그곳에서會見하야이뜻을말하고討議한바이잇섯는데同軍으로서의主人格인體協과의妥協如何를기다려二十八日에對戰할일을協定하얏다確定된모든事項은本社와가티交涉한體育會로부터追後에發表할터이다

對戰할代表팀은

朝鮮的으로銓衡中

朝鮮스폿스맨들의熱望하든시카고大學野球團과朝鮮人과의競技가行하게되얏슴은別項報道와갓거니와體育會에서는對戰할팀을組織하기에가장愼重히人選을하려고하야方今焦心中인데저번大會의뒤어러同會의打擊率이優秀한『베스트나인』을가리어全朝鮮人軍이란名實이相合되는팀이되리라는데그銓衡으로저번大會審判員及關係諸氏는今明間人選을마치고곳練習에着手할터이다

大邱에남겨둔 시軍戰績

安打12에得點8

大邱에서 李吉用記

遠來의珍客으로朝鮮運動界의커다란期待되든시카고大學野球團은二十二日大邱에이르러全大邱軍과게임을行하야八A對一로시카고軍이익이엇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그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 大邱高宮羽球를三越安打하야松本二前犧打와黑田投前에三進하얏스나後前三振으로無爲▲시軍 하우엘• 맥크린드投前콘닝함遊飛로물러서다

◇第二回 邱軍沖遊前成松三前後工藤四球로出하얏스나二次에不成▲시軍맥콘넬三前軟打에出하야웹스터投前벤트에封殺되고J하우엘二飛쓰럭넬二側安打에各進하얏스나와이스中飛死

◇第三回 邱軍三者中遊中에各飛死▲시軍깁빈스投直安打잇슬뿐으로無爲

◇第四回 邱軍無爲▲시軍맥콘넬左前直球로나아가二盜後합스터左側三壘打에生還J하우엘中飛犧打에웹스터生還二點先取

◇第五回 邱軍無爲▲시軍B하우엘二右側打와맥클린드四球로나아가콘닝함一前벤트에兩者二三進後맥콘넬三遊間安打에하우엘、웹스터遊越安打에兩者生還

◇第六回 邱軍無爲▲시軍와이스左側線上의二壘打로出하야깁스쎌三進後홈스틸에一點生還

◇第七回 邱軍凡退▲시軍맥콘넬死球로出하고웹스터投前와二次遊球에生還J하우엘三前二死後쓰럭넬四球와이스左側二壘打에生還하야二點을加하다

◇第八回 邱軍一死後工藤二中間安打를中後逸하야一擧三進後田中犧打에貴軍히生還되다後援이無▲시軍一死後맥크린드左越三壘打에出하야콘닝함遊飾失에生還할뿐

◇第九回 邱軍라스트햇트이엇스나三者凡退로萬事休矣되니結局八A對一로失軍勝하다때는五時半(大邱에서李)

	大邱	記錄		시카고
8	高宮	27 打數 35	4	R.하우엘
6	松本	2 安打 12	8	맥크린드
4	黑田	4 三振 3	3	콘닝함
2	後藤	1 四死 4	6	맥콘넬
7	沖	(盜壘 3	2	웹스터
5	成松	2 失壘 9	1	J.하우엘
3	工藤	2 犧打 1	5	쓰럭넬
9.1	田中	1 失策 3	9	와이스
1.9	青山	0 三打 2	7	깁빈스

得點 邱 000000010 =1
得點 시 00022121A =8A

野球界의伯仲인 培材對中央戰

月末頃에實現乎

저번體育會主催의野球大會에學校事情으로出動하지못한中央高普野球部에서는同大會에優勝한培材高普野球部와對抗戰을하고저하야방금交涉中이라는데아즉日字는確定하지안헛스나中央軍은지난中學리그에優勝한新進猛銳의팀이오培材軍은體育會大會에서四次나優勝한傳統的强팀이라兩軍의게임이實現되는때에는朝鮮球界에잇서서日本早慶戰의觀이잇스리라고滿都팬의人氣는應當沸騰되고야말것이다

主義書籍본다고 辭職을勸告한小學校長

공립보통학교의훈도는 사회주의서적을못본다

江景公普校長의迷妄

십월십구일에 충남 강경공립보통학교훈도서창석(徐昌錫)씨는 돌연히동교수석훈도 윤창구(尹昌求)씨로부터사직권고를바덧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전긔서씨는 원래사회과학(社會科學)에취미를가지고 틈만잇스면 사회문데 서적구독에 골독하야 틈잇는대로 당국에서 불온하다는 사람들과도 자조교제하게된것이 말정이되여 동교교장궁모례여조(宮牟禮與助)씨에게 금후로부터교육에열심하겟다는의미로 시말서(始末書)까지쓴일이잇섯는데 그후에서훈도는 사회주의와종교(社會主義와宗敎) 로동로서아의교육(勞農露西亞의敎育)등두책을 일본동경에잇는무산사(無產社)에주문한일이잇서 그책이 도착하자 동교교장궁모씨는 이우편물을 임의로검사하여본결과 뜻박게 주의서책인지라 분격한어조로 수석훈도윤씨에게 말하기를 서훈도는나의부하가될수업다 됴선에서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과가티 교편을 잡을수업스니 속히사직원을데출하도록하여달라는부탁을 함이라는데 이소식을들은일반사회에서는 학교당국의괴상한행동에대하야 만흔의아와 비난이사방에서 일어나는바 사직권고바든서씨는 엇더한 태도를취할는지 일반은매우주목하는중이라더라

徐氏態度强硬

사직권고는무리 증계면직은감수한다

강경공보교장 궁모씨가 동교수석훈도 윤창구씨를 식혀서 서창석씨에게 사직권고를 강청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사직권고를바든 서씨는이에대하야말하기를 『나는그무리한 사직권고에는 응할수업슴니다 훈도란 사람도사회뎍인간이오 결코 사회를 초월한 비인간뎍인간이 안일바에야 누가 사회에서 축출하겟슴닛가 금번나에게사직권고한 리면에는 복잡한사정이 잇는지 몰으나 서책구독한다는 리유로사직을 권고함에는 절대로 들을수업고 분명한조건하에징계면직(懲戒免職)은 달게밧겟슴니다』하더라 (강경)

日本聯隊에서 百餘名이一時吐瀉

음식물에중독이되여 생명위독한자도잇다

지난이십일아츰 본광도(廣島)보병데십일련대(步兵第十一聯隊)에서칠십명의 군인이 일시에 토사(吐瀉)를하는동시에 계속하야 공병대(工兵隊)에서이십삼명 데오련대(第五聯隊)에서열명 그외이십륙명을 합하야 백구명이토사와 설사를하야 대소동을이루엇는데 데오사단(第五師團)군의부(軍醫部)에서됴사한결과 지난번연습(演習)할때에산구디방(山口地方)에서사온반찬(副食物)에 중독이된것이 발견되엿는데 공병대가운대에는 생명이위독한자도만타더라

술집에放火한 뎐긔회사공부

십여일전에 시내 장사동(長沙洞)일백구번디 음식뎜(飮食店)김뎡숙(金貞淑)의집초가집웅에서 불이이러나 한참소동을이루엇섯는데 그불난원인이 매우수상하엿슴으로 소관종로경찰서에서 여러가지로엄중한됴사를한결과 과연방화이엇든것이판명되는동시에 그범인으로죽첨뎡이뎡목(竹添町二丁目)이십사번디 뎐긔공부(電氣工夫) 안봉국(安奉國)(三六)을인치심문하든중 드듸어이십삼일에 일건서류와 함의검사국으로넘기엇다는바 이제그내용의 자세한것을 들으면 지난십삼일새벽여섯시이십분경에 안가는술이몹시 취하야 김뎡숙의집에이르러 술을먹자 하엿스나 자리가업다는거졀을당하고 이에분개하야 뎐긔『시우치』를몰래은어서 그집안을 어둡게하는등여러가지소동을이르키어노코 다시전긔와가티성냥을 사용하야 집웅에불을노핫든것이라더라

賭博日人三名

본뎡서에서취됴

시내어성뎡(御成町)일백오십번디 일본인상원태조(上原泰造)와 태평통(太平通)팔십일번디고뎐신태랑(高田新太郎)과 동뎡이십구번디송원청칠(松原淸七)등 세명은 이십이일 오후열시경에 전긔 상원의집에서 도박을하다가 본뎡서원에게 피착되엿다더라

竊盜常習犯

동대문서에검거

시내 태평통(太平通) 일뎡목에거주하는 일본인심천좌조(深川佐助)(三九)와 촌뎡반삼랑(村井伴三郞)등두명은 편지지와 연필등속을 가지고 행상인(行商人)의차림을 차려서는 시내각처에도라다니면서 식구가 단출한가뎡을 탐문하야 절도를하는상습자로써 이십이일 오후 다섯시경에는 시내동소문 부근에서배회하는것을 동대문서원이 행동수상자로 인증하야 인치취됴하든바 과연전긔와 가튼사실이발각되엿다더라

仁川勞總 執行委員補選

도조쟁의격문도발송

인천로동총동맹(勞働總同盟)에서는 전남 무안도초(務安都草)소작쟁의에대한격문(檄文)을재작일에 발송하는동시에 동이집행위원중 결원되엿든 삼인을보선하얏는대 그씨명은아래와갓더라 安基成 高三辰 李出成(인천)

◇集會◇

◇印刷靑年臨時總會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에서는 이십사일오후일곱시부터 시내관수동(觀水洞)구십이번디 동회관연구반(研究班)내에림시총회를열터이므로 일반회원은만히 참석하야주기를바란다고

◇普成專門校友總會 보성전문학교우회(普成專門學校校友會)에서는 오는이십오일 일요(日曜)상오열한시부터 동대문밧영도사(永導寺)에서 뎡긔총회(定期總會)를 열터이라는데 이날은아래와가튼여러가지조건을의론할터이며 자유출연(自由出演) 제비뽑기등의여흥도잇다고

◇議題
一、會報發行에關한件
一、會費徵收方法에關한件
一、會則改正에關한件
一、母校財團後援에關한件

主日校大會順序